

저경력교사 특정 지역 집중 현상 해소한다

도교육청, 인사제도 개선안 마련... 신규교사 등

우선 안배 가능 조항 신설, 최대 전보가능인원 축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특정 지역 및 학교에 저경력교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관련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저경력교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신규교사 및 정원 내 기간제교사를 우선 안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인사관리기준에 명시했다.

그동안은 서열부에 의한 경력교사 전보 후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 배치가 이뤄지면서 비선호 지역에 신규교사와 기간제교사 집중 현상이

발생했다.

이어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별 최대 전보 가능 인원을 정원의 2분의 1에서 40%로 축소했다.

또한, 교육경력에 의한 가산점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급간으로 부여했던 가산점도 호봉당 가산점으로 전환해 타 전보 가산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특히, 근무 비선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군산을 실거주교사 순환면기 시 전보 희망 가능 지역에 포함했고, 지역의 전보 침체를 막기 위해 실거주

교사 실거주지역 전보 유예 조항은 삭제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해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도 가졌다. 이후 인사지원위원회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성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안은 어느 한 지역에 저경력교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 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마련된 인사제도 개선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4개 거점국립대학교 144명의 학생들(대학별 36명)은 28일 2023 나라사랑 독도사랑 국토탐방 발대식을 갖고 7월 1일까지 독도와 울릉도 탐방에 나선다.

'나라사랑' 독도에 울려 퍼지다

전북대 등 4개 거점국립대 학생들, 울릉도·독도 탐방

거점국립대학교 학생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독도에 울려 퍼진다.

29일 전북대에 따르면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 4개 거점국립대학교 144명의 학생들(대학별 36명)은 28일 '2023 나라사랑 독도사랑 국토탐방' 발대식을 갖고 7월 1일 까지 독도와 울릉도 탐방에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 사랑 실천과 거점국립대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2019년까지 진행해 오

다 지난해부터 다시 재개됐다.

첫날 경북 울진에 모인 학생들은 이날 오후 발대식을 갖고 이번 행사의 의미를 다지는 선서와 함께 독도에서 실행할 플래시몹을 함께 기획했다.

이어 둘째 날인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울릉도로 이동해 생태탐방을 비롯해 울릉도 향토사료관 방문, 해안 트래킹 등을 통해 대학 간 우의를 다졌고, 30일에 독도방을 밟아 미리 준비한 플래시몹 행사 등을 통해 독도가 우리땅임을 알릴 예정이다.

전북대 김종석 학생처장은 "이 행사를 통해 거점국립대 간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거점국립대학교 학생들이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이번 탐방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타인과 화합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돌아갈 버린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 학생들은 이번 독도에서의 플래시몹 등 행사 전반을 동영상으로 담아 SNS 등을 통해 국내 외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대학원생, 방사성폐기물학회 '우수'

안지현, 핵물질 실시간 검증 붐인시스템 성능 평가 발표

신지민, 토륨 함유 가스맨틀 사용·폐기 시나리오 개발

전북대학교 플라즈마 및 양자 빔응용공학과 서희 교수 연구실의 안지현(박사과정)·신지민(석·박사 통합과정)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에서 각각 우수 발표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두 대학원생은 지난해 이 학회의 추계학술발표회에서 각각 '핵주기정책·규제 및 핵비확산'과 '방사선환경 및 안전' 분야에서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핵주기정책·규제 및 핵비확산 분야에서 수상한 안지현 학생은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rototype Real-Time Verification Sealing System'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 연구는 민간 핵물질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기 위한 붐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성능을 평가한 것이다.

또한, 신지민 학생은 'Radiation Dose Assessment of Thorium-Containing Gas Mantle for Use and Disposal Scenarios'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방사선환경 및 안전 분야에서 우수 발표논문에 선정됐다. 한국원자력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 연구는 토륨이 함유된 가스 맨틀의 국내 활용현황을 고려해 사용 및 폐기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한 방사선량을 평가한 것이다.

한편, 안지현 학생은 '사용자 친화형 운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프로토타입 실시간 검증 붐인 시스템의 개선안 적용을 통해 상용 장비 개발 계획을 신지민 학생은 방사성동위원소가 함유된 다양한 소비자제품의 방사선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 도출 계획'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안지현



신지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복합차원구조 형성 연구

전북대 차정범 박사과정생

국제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전북대학교 에너지-AI 융합공학과 차정범 박사과정생(지도교수 김민)은 '2023 세계재료총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대회에서 차 박사과정생은 '페로브스카이트의 1D/3D 복합차원 구조 개질을 통한 태양전지 효율 향상'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차 박사과정생은 차세대 태양전지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고효율 달성을 위한 1D/3D 복합차원 나노 구조의 실시간 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단일차원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표면에서의 복합차원 나노 구조를 실시간으로 유도하고, 재료의 표면 결함 제어와 소자 내 에너지 밴드 정렬에 있어 복합 차원 우수성에 관한 분석 성과를 냈다.

차정범 박사과정생은 "이번 연구를 원활하게 이끌어 준 지도교수님의 열정적인 연구 지도에 감사드립니다"며 "학위 과정 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기초학력 신장·학생 맞춤형 자존감 회복 지원

도교육청, 기초학력 쑥쑥 테마가 있는 캠프' 내달부터 진행

도내 중학교 41곳·고교 32곳 등 총 73곳 224개 테마 선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월부터 기초학력 쑥쑥 테마가 있는 캠프를 진행한다. 29일 밝혔다.

'기초학력 쑥쑥 테마가 있는 캠프'는 학습지원대상학생 또는 학습결손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과)교사 등이 휴일이나 방학을 이용해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10명 내외의 학생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중학교 41교, 고등학교 32교 총 73개교 224개 테마를 선정했으며, 학생들의 2차교사가 끝난 후 휴일과 방학기간을 이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각 학교는 독서골든벨·역사가 있는 성지캠프·별빛 달빛 독서캠프·실력 쑥쑥 사계절표·교과서 밖 진짜 과학 마추하기·자존감 향상 도담도담캠프

등 테마를 정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기초학력보장선도학교 협력교강사(141명)지원, 교과보충프로그램(517교), 대학연계 학습지원튜터(376명) 등의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서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힘이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해 기초학력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난 24일 일본 현지에서 열린 국제 운동주 시 낭송 일본대회.

전주기전대, 국제 운동주 시 낭송 일본대회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지난 24일 일본 현지에서 2023년 운동주 시 낭송 일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6명의 학생들로 구성, 한국어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진출자 6명, 한국어를 비모국어로 사용하는 진출자 10명으로 구분을 나눠 대회를 진행했다.

시상은 한국어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회 부분 최우수상은 오사카공영인태내사립고등학교 김대상 학생이,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회 부분 최우수상은 교토국제고등학교 김리우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1인용 기프트 카드도 주어졌다.

특히 올해 대회는 일본 백두회원 전국고등학교에서 대면으로 진행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조희천 총장은 "전주기전대학은 2010년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첫 대회를 시작으로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영국, 독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 운동주 시 낭송대회를 개최해 왔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일본 현지에서 참가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동포 및 현지 청소년에게 운동주 시인의 삶과 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세계 곳곳에 정서적인 문화교류의 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원광대, '대학생활과 자기혁신' 방문 체험 프로그램 성료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3학년도 1학기 교양 교과목 대학생활과 자기혁신' 방문체험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내의 주요 기관을 방문 체험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을 이해하도록 기획됐다.

지난해 교내 자연식물원과 박물관, 중앙도서관, 대학원지리플러스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는 익산창년시정사업설명회와 교수학습개발과, 익산시 티투어까지 확대해 총 7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중부 참여자를 포함해 총 83개 분반에 연인원 6,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청년시청과 함께하는 사업설명회를 비롯해 교양교육원, 익산시,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대학혁신사업단, 익산학연구소가 공동 운영하는 '익산시투어'는 지역과 대학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 가치를 제고하고,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공고-코스텍 기술 발전 연구개발 시설 공동활용 지원 상호 발전 협력키로

전주공업고등학교(교장 오홍하)는 28일 (유)코스텍(대표이사 정경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회사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 연계에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취업 협력과 우수 학생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술 발전에 대한 연구개발과 공유 △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 지원 △기타 상호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이 있다.

2018년 설립된 (유)코스텍은 수소 충전소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 수소 관련 시험연구장비 제조 및 수소 관련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소충전소 설계·시공 분야 중 산업부에서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준받은 도내 유일한 기업이다.



전주공업고등학교는 28일 (유)코스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회사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 연계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경직 대표이사는 "전북 수소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주공업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게 됐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 학생들을 지원하고, 훈련시켜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홍하 교장은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형 도제사업 등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코스텍과의 협약으로 전북도 수소산업 발전과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